

시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지만, 죄인의 심정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감정적으로 언론인터뷰를 진행한 부분은 기초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연수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처신에 관한 부분은 과천시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불찰로 인해 초기 계획대로 진행될 것 믿고 동행해주신 동료의원에게도 폐를 끼치게 된 점에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불미스러운 일로 과천시민의 명예에 흠을 낸 것은 제 평생의 과오로 삼아 속죄하겠습니다.

박상진 배상

시민 여러분께 함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캐나다 연수 관련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이 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좀 더 세밀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있어서 저 또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캐나다 의정연수와 관련된 비용 전액은 과천시에 반납 처리했으며, 향후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 의정연수는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합니다.

김현석 올림